

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 세션 9, 요나, 2부

© 2024 마브 윌슨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요나 파트 2의 세션 9입니다.

또 다른 날, 당신은 우리를 밤새도록 지켜주셨고 우리는 오늘 당신과 함께 걷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투쟁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배우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인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신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의제 항목에 우리가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요나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배짱과 용기를 주소서.

우리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과 한 사람이 항상 다수라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성취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며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나의 이야기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석적인 논평, 신학적 논평, 역사적 논평, 지리적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책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 갈릴리의 이 작은 마을 출신인 요나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는 소선지서 중 유일한 책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항상 100%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해 당신이 항상 완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처음 네 명의 여성 중 세 명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구약에서 평판이 의심스러운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빠뜨린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봅니다. 우리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이중 죄를 범한 다윗과 같은 다른 인물들을 살펴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쓴 시편 73편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가장 깊은 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개인적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나는 열렬한 애국자였으며, 그 자신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악당들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각 장은 한 단어로 된 요나 이야기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1장에서는 도피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2장에서는 기도하는 선지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단순한 서술에서 시로 전환합니다.

그것은 그가 물고기 속에 묻혀 있던 것을 재구성하여 만든 기도문입니다. 세 번째 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선지자와 기도하는 선지자 대신에 그는 이제 순종의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에서 그는 부루통한 선지자이고 화난 선지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자신의 개인적 측면에서 몹시 불평합니다. 그는 죽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첫 구절에는 헨디아디(hendiadys)의 예가 있는데, 선지자들에게서 여러 번 보게 될 헨디아디(hendiadys)입니다.

Hen은 그리스어로 one이라는 단어의 중성형입니다. 디아(Dia)는 ~에 의해서(by), ~을 통해서(through)를 의미합니다. 물론 dys 또는 dy는 2, 1x2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hendiadys는 일반적으로 an과 연결된 두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셈족의 문체를 사용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논문을 쓰고 있다면 대답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에 두 개. 우리는 그것을 한 단어로 아주 멋지게 줄일 수 있습니다.

Hendiadys는 두 단어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 그런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자, 당장 일어나 니네베로 가십시오. 우리는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지 말고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문학적 활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바로 그것을 만납니다.

책은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몇몇 선지자들에게서는 크고 극적이며 불타는 떨기나무, 매우 강력한 환상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에스겔을 보십시오.

그는 이 UFO형 마차가 하강하는 것에 압도되어 오랜 시간 동안 뒤집어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극복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내가 말했듯이 다른 선지자들은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와 말씀이라는 표현은 선지자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조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가서 1:1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 비록 여러분이 그 표현에 익숙할지라도, 특히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고스는 말을 의미합니다.

Memra 입니다. 다른 단어. 히브리어로는 다바르(Davar)입니다.

그리고 다바르(Davar)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에 수백 번 등장하며, 성경 자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단어까지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선지자의 근원을 가리킨다. 나는 이전에 말했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으며, 문학적 표현과 장르를 살펴보고 구성 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단순한 문학적 자료로 봄으로써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선지자들을 볼 때 선지자에 관한 이것이 그가 말하는 방식이라는 전제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다시 개회강의로 돌아가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변인. 그래서 크고 극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선지자 내면의 조용한 확신이든, 어쨌든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첫 번째 봉사 임무에 저항하고 3장에서 두 번째 임무를 받은 후에는 그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민감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신 말씀이니라. 아니면 NIV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십시오.

신약성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 케리그마(Kerygma)의 전체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리그마(Kerygma)는 선포 하다, 설교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동사 케루소(kerusso)에서 유래한 말로 선포 또는 설교를 의미한다. 신약성서의 케리그마는 특히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는지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케리그마입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선포나 설교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신약성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의 선포에는 구약의 대응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큰 도시 니느웨에 관해 전할 기별을 갖고 계셨습니다. 좋아, 요나, 기원전 8세기 전반.

나는 기원전 700년에 니네베가 고대 근동에서 떠오르는 슈퍼스타 중 하나의 수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산헤립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700년까지 산헤립은 그 도시를 수도로 삼았으며, 612년에 멸망할 때까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나훔은 612년 니느웨 성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악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제 나훔서를 읽으면 이 도시가 악한 도시라는 평판을 얻은 일들의 더 구체적인 목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둘. 또는 310년 후반에 니네베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길을 회개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나는 그보다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라샤 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사용된 것처럼 단순히 윤리적으로 느슨하고 사악하며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도덕성과 윤리와 관련하여 항상 유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훔서 2장, 12장, 13장과 3장을 보면 매춘, 마술, 전쟁에서 약탈하는 잔혹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eschel이 여러분의 교과서에서 언급할 것처럼 로마인들은 정복된 대상을 기둥에 박고 그 안에 말뚝을 박고 그들을 성벽 밖에 전시하는 아이디어, 특히 도시의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인들의 십자가형 개념은 사실 앗시리아인들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의 군주들이 적들의 피로 산 전체에서 죽었다고 자랑했습니다. 나훔 3장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니네베는 상업적인 사치로 인해 인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선지자 연구 초기에 성경이 지지하는 국제 도덕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 얻는 메시지는 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모스 1장과 2장에

나오는 여덟 나라를 검토할 때, 특히 그들이 비인도적이며 잔인한 행위로 인해 비난을 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 세계의 인권을 지지한다면 모든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야 하며 우리는 잔인함과 비인간성에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는 기독교가 창안한 것이 아니며, 과부들을 돌보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연보궐을 돌리는 일도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모세 율법에 있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얻는 것은 토라에서 이미 나온 내용을 기본으로 반영하는 선지자들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을 유지해야 하지만, 토라 중심이 아니라면 성경을 소설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신약성서의 성경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신약성서의 모든 사상이 검증되고 확증될 수 없고 선지자의 율법과 기록에서 이미 그 선례가 발견되지 않는 한 그것은 신약성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하나의 성경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경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Sirach나 Jesus의 지혜, Ben Sirach, Ecclesiasticus와 같은 많은 외경 저작물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카베오의 반란 이전인 기원전 2세기 초에 기록되었습니다. 기원전 168-165년. 마카베오 1서와 2서는 신약 성서가 나오기 수십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 경전은 주변에 있었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사해 두루마리가 모두 풀려 분류되었을 때 쿰란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성경이나 선지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호소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Tarshish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된다면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Tarshishah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단어의 어미로서 어떤 것을 향한 방향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곳은 페니키아 광산 식민지였던 지브롤터 바위와 가까운 스페인 남서부의 타르테소스 시일 것입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페니키아인들은 공해를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몇 세기 전인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이 모든 무역을 위해 함대를 마련해야 했을 때에도 그의 배는 다시스의 배로 언급되었습니다(왕상 10:22).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를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 개미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것 중 하나는 매우 독특한 작품입니다.

원숭이들이에요. 지중해로 나갈 때마다 배에는 원숭이들이 탔다. 그리고 원숭이들은 시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항상 돛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항상 땅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서 시대에 지중해에서 레이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다를 떨기 시작했을 때, 아래에 있던 선원들은 그들이 육지를 처음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박물관에서는 이런 원숭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진열장으로, 이 배들 중 하나를 타고 지중해를 여행할 때 원숭이의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글썄, 페니키아인들은 요파에서 스페인까지 서쪽으로 2,000마일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광산 식민지였습니다. 아마도 타르투스가 바로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그 단어를 이해하는 또 다른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스입니다.

다시샤는 히브리어로 넓은 바다를 가리킨다. 사이러스 고든(Cyrus Gordon) 교수는 자신의 학술 기사 중 하나에서 일반적으로 다시시(Tarshish)라는 단어와 관련된 배들이 넓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그들은 무역선, 대형 무역선입니다.

그러므로 다시스는 넓은 바다와 동의어일 수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라고 하면 대륙간 화물선이나 글로벌 화물선을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위치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암시합니다.

내 대학원 동기 중 한 명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가라앉은 배를 찾기 위해 지중해의 바닷속으로 수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맘때인 3월은 늦은 겨울에 더 큰 폭풍이 닥치는 경향이 있는 세계의 해당 지역에서 난파선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난파되어 어느 섬에 도착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몰타.

좋은. 몰타 섬에서.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던 250명이 넘는 죄수들이 결국 해안에 도달할 때까지 유목 조각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술 중 하나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죄수들이 춥고 배가 고파서 바울이 불을 피울 나뭇가지를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 강력한 사도 바울이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저기 114번, 불을 피울 나뭇가지를 모아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난파선의 죄수들 가운데서도 종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페니키아인들이 이 배를 운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페니키아인들은 알파벳을 발명한 사람들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은 갈멜 산 바로 북쪽에 있는 이 영토에서 왔으며, 두로 와 시돈은 그들의 더 중요한 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날 이곳은 레바논 땅이다.

페니키아인은 가나안인입니다. 가나안인이 지중해 동부 해안 전체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음 텍스트인 Aleph, Bet, Gimel, Dalet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알레프(Aleph), 베티(Bet), 기멜(Gimel), 달렛(Dalet)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리스인, 알파, 베티, 감마, 델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결국 그것을 에트루리아인과 로마인,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페니키아인들은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력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성경사전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역사 전반에 걸쳐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세우는 기본 원칙, 즉 모든 것이 신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삶의 모든 차원의 파이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자이시며, 통제자이시며, 설계자이시며, 인도하시는 분, 역사를 어딘가로 가져가시면서 역사 전반에 걸쳐 움직이시고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역사관은 우리가 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나쁜 놈들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좋은 놈들이 이길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역사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도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와 국가를 인도하고 인도하신다는 헤셀의 말이 옳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평화와 정의와 정의의 시대인 선지자들의 비전으로 나아갈 때까지 선형적이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연이 자주 보여주는 것처럼 반복적인 순환이 아닙니다.

그리고 헤셀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재빠르게 지적하고 또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즉, 인간의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시지만,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헤셀의 말에 따르면, 성경 시대나 오늘날의 모든 행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거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고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국가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세상의 모든 것을 조작하거나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크고 웅장한 계획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드 아일랜드의 수도인 프로비던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섭리. 로저 윌리엄스는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프로비던스 시의 목사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보내시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과학자나 기상학자로서 정의하거나 성경에서 보는 방식으로 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십니다. 한편, 지중해의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서쪽으로 이동하는 특정 전선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이맘때,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를 초래한 특정 기상학적 요인이 있는데, 그 결과 이 배가 거의 난파될 뻔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작은 책에서 그 만트라를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117년에 주님은 큰 물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는 자연을 통제합니다. 210,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그것이 요나를 토해 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467년과 8년, 그 후 주님은 포도나무를 준비하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47절에는 주님께서 포도나무를掐아먹는 벌레를 주셨습니다.

48절,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 즉 함신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자연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페니키아인이나 가나안인 사이에서 자연과 신이 하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자연종교였습니다. 바알은 날씨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페니키아 해안에서 크게 숭배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내는 어디서 왔으며, 그녀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이세벨. 그러면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었습니까? 두로 왕의 딸 이세벨. 그리고 그녀는 자연 숭배에 대한 이러한 광신을 북쪽 왕국으로 가져왔습니다.

페니키아에서 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자연과 동일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연 위에 계신다고 말할 때, 그분은 자연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범신론과 자연을 지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신학적으로 본문 안에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큰 바람을 보내시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선원들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선원은 말 그대로 짠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소금을 두려워하는 선원들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지중해를 항해하며 소금물로 여러 차례 목욕을 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금 바다 인 말라기암이 있습니다. 420년에 제롬이 사해라고 불렀고 그 이후로 우리는 그것을 사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라기암 곧 소금 바다라고 부릅니다.

선원들은 그들 자신의 신들, 그리고 아마도 그들 각각에게 부르짖습니다. 다신교적인 자연세계이며, 배에 탄 사람들은 비를 내려 땅을 비옥하게 하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풍작의 신인 바알 등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선원들은 아마 배에 죄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신이 당신에게 화를 내는 것과 그것이 아마도 당신이

그렇게 나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 사이의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축복을 받으면, 당신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고, 당신의 농작물이 역병과 곰팡이와 가뭄에 시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자연계가 모든 것이 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가(quid pro quo)는 고대 세계에서 종교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예물을 가져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미가서 6.8장이 크레센도인 이유이다.

나중에 강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안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태의 열매를 바친다면, 주님,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신을 달래겠습니까? 인간 희생,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미가는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스밧과 헤세드와 지니요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 변함없는 사랑, 때때로 번역되는 친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걷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의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훼의 사랑은 의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가 항상 노출되어 온 위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가, 즉 무언가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접시에 30달러를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 나에게 반납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날 좋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돌려받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우주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사무엘상 12장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답을 줍니다.

사무엘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일을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모티브를 찾아냅니다. 요한1서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온 선행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얻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때문에 기독교에 왔습니다. 우리는 얻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나안 종교입니다. 나는 신을 달래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달래야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를 내 등에서 떼어 놓아서 그에게 돈을 갚거나 사거나 그의 좋은 편에 서기 위한 의식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간에 선원들은 바다가 모두 동요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구하려면 우리는 그 신을 달래야 합니다. 요나는 어디 있어요? 6절, 바다 속으로. 갑판 아래에서 자루에 넣어졌습니다.

사실, 이 특정 장소에 대해 조금 더 넓은 70인역을 읽어보면 요나가 갑판 아래서 깊이 자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요나가 거의 최면에 걸린 잠에 가까운 잠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 그럼 잠을 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제 제비를 뽑는 일은 성서 시대에도 널리 행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첫눈에 다소 무작위적이고 무계획적인 안내를 받는 방식보다 더 나은 GPS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란 무엇이었나요? 분명히 그것은 표시가 되어 있을 수 있는 막대기나 자갈을 포함했고, 그것들을 던져 넣어졌던 일종의 용기에서 꺼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스 세계에서 이에 대한 한 가지 버전은 우리 단어 ostracize의 기원입니다. 여기서는 도자기 조각인 ostrakon을 사용하고, ostraca, 복수형, 도자기 조각, 그리고 공동체나 마을 내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주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표하세요. 따라서 범인의 신원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일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역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약속의 땅에서 적절한 영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관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는 일은 신약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나요?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위해 제비를 뽑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훌륭한. 유다와 초기 사도들의 교체는 열둘 중 한 사람의 교체가 누구인지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소 무작위로 보일 수 있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33절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제비가 내리는 길을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3절 말씀대로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신의 손가락은 이제 선지자 요나를 가리키며, 즉시 그는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엄청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왔니? 당신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캐나다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와 거의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세 가지 질문입니다.

어디서 왔니? 어디 가세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나요? 그래서 여기 이 국제적인 맥락에서 선원들 사이에 있는 히브리 선지자는 이름, 계급, 일련번호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세 가지 신앙고백 중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는 흥미롭습니다.

요나는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그는 3층 우주를 던졌다. 이제 여러분의 우주론적

이해는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신약성서에서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바다 아래에 있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고대 근동의 광범위한 3층 우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주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이를 창조와 연결시킨다. 만약 우리에게 신약성서만 있었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창조신학적 교리를 발전시키기에는 상당히 가난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앞부분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와 같이 그가 예배하는 분의 능력이 표현되는 고백적인 진술이다. 바라싯 바라.

성경의 처음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B 문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바라(Bara)는 엘로힘(Elohim) 신을 창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진술은 창조와 그분의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Bara)는 완전히 새로운 것, 즉 창조력을 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요나의 하나님은 지중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땅의 하나님이시며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물고기에게서 나올 때 할 두 번째 고백은 2장 9절에서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세 번째 신앙고백은 4장 3절에 있다. 하나님이 성을 치실지라도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노라. 요나는 체험을 통해 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의 하위 주제 중 하나는 신학이 정적이지 않고 종지와 잉크에 적힌 신조 선언문에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도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역동적이다.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방식을 경험하면서 그분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신약의 첫 번째 신학은 실존적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교회에서 글을 쓰고 반성하게 됐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요나가 2.9절에서 사용하는 흥미로운 단어인 예슈아, 구원 또는 구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요나는 첫 번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구약에서 의미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와 동일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미묘한 발굴. 바알, 미안해요, 아마도 자연이겠죠, 신.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보다 뛰어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주님에게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폭풍이 당신에게 닥친 이유입니다. 이제 13절에는 매우 생생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나 시대에 지중해에서 배를 움직이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물론 하나는 돛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배에는 돛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노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여기 13절에 실제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남자들이 최선을 다해 육지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그림'은 땅을 파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를 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9장 2절에서도 같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주변의 폭풍우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육지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요나를 데리고 배 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성난 바다가 잠잠해지고 사람들은 주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를 배 밖으로 내던지겠다는 표시였고,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이 입증되었다는 자발적인 선언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폭풍을 잠잠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한 결과로 이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개종한 것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요드헤바브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자발적인 인정이 있었다고 최소한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들의 전쟁인 구약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구약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나는 항상 그것이 다루는 주요 하위 주제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나의 하나님은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방 신들 가운데서 자기의 이름을 세우셨으니 곧 그가 살아 계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야훼의 기둥에 하나를 놓는 예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걸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분 안에 살아 계심을 간증하기 위해 자연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군인들은 자연의 기적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또 다른 것은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나는 물고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위대한 물고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나와 자주 읽혀졌기 때문에 하나의 계정을 읽고 싶습니다.

프린스턴 신학 리뷰(Princeton Theological Review)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은 19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James Bartley라는 사람의 사례를 인용합니다.

인간이 거대한 물고기에 휩싸여 살아남아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프린스턴 신학 리뷰(Princeton Theological Review)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1891년 2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래선 Star of the East는 포클랜드 제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은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커다란 향유고래를 발견했습니다. 두 척의 보트가 내려졌고 짧은 시간 안에 작살잡이 중 한 명이 물고기를 찢어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는 고래를 공격했지만 꼬리가 채찍에 맞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사람들 중 한 명은 익사했고 다른 한 명은 사라진 제임스 바틀리(James Bartley)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래는 죽었고, 몇 시간 만에 거대한 시체가 배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도끼와 삽을 들고 지방을 제거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일했고 밤에도 일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배에 태클을 부착하여 갑판에 올려 놓았습니다. 선원들은 경련성 생명의 징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실종된 선원이 두 배로 몸을 덮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갑판에 누워서 바닷물 목욕을 했고, 그 덕분에 곧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장실에 배치되어 2주 동안 미친 듯이 지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친절하고 세심한 대우를 받으며 점차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가 지나자 그는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직무를 재개했습니다.

고래의 뱃속에 머무는 동안 위액의 작용에 노출된 제임스 바틀리의 피부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의 얼굴, 목, 손은 치명적인 하얗게 탈색되어 마치 양피지처럼 보였습니다.

Bartley는 공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포 때문에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아마도 굶어 죽을 때까지 육체의 집 안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흥미로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많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1927년 프린스턴 신학 리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고래가 아닌 이 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고래를 뜻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다그일 뿐이야 가돌(gadol)은 거대하거나 큰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오늘 이스라엘에 갑니다. 메뉴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개를 요청했습니다.

개는 물고기를 일컫는 일반적인 단어이고 여기서는 dag 로 설명됩니다. 큰 물고기 인 가돌 . 종 없음. 돌고래, 대구, 고래, 뭐든지요.

설명대로라면 일종의 바다 괴물입니다. 좋아요, 오늘은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요나서 2부 세션 9입니다.